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7호 (2024.04.12)

- **이 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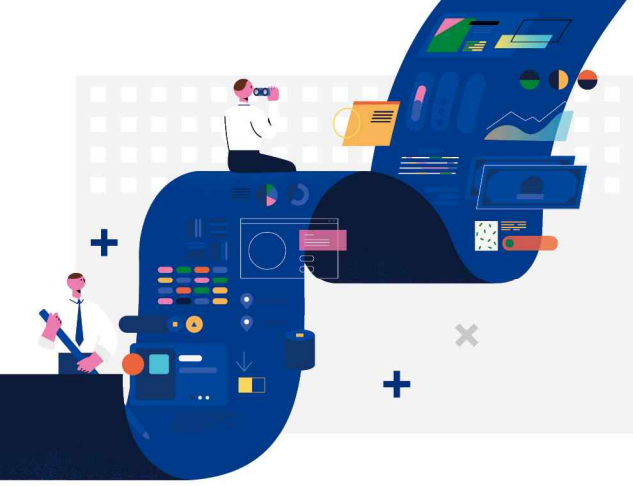
  (산업)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현황과 인천 지역산업의 과제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7호 (2024.04.12)

Cotents

Ⅰ. 이 슈

(산업)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현황과 인천 지역산업의 과제 ····· 1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 10

Ⅲ. 국내 정책동향

(교통)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5월 출시되는 K-패스 회원으로의 전환 필요 ···· 11

(경제) 개인 회생 및 파산채무자 최소생계 보장을 위해 물가 변동 반영 ····· 11

(산업)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 부담 완화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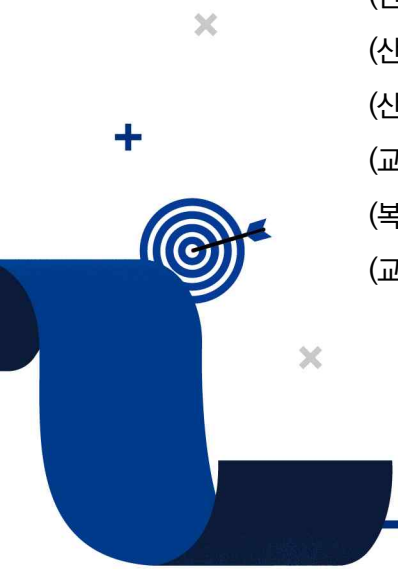
(산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관세·무역 상담 무료 제공 시행 ····· 12

(산업)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사 모집 공고 ····· 13

(교육)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사업 참여 대학 모집 ····· 13

(복지) 주소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종류 확대 ····· 14

(교육)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을 위해 '29년까지 220억 원 투입 ·····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이준영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산업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현황과 인천 지역산업의 과제

#디지털전환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산업정책 #지역산업발전

○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기술을 광범위한 산업 부문의 다양한 기업 활동에 접목하여 산업 발전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산업계의 글로벌 추세로 대두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에 관한 관심은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의 제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관련 논의를 통해 증폭되기 시작
  - 2016년 슈바프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제시하며, 기술 부문의 경계가 모호한 혼합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
- 최근 생성형 AI 등을 통해 주목받는 디지털 전환은 제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언급되었던 기술들이 산업 부문에 적용되고 활용되는 과정을 의미
  - 디지털 전환 기술은 다양한 기술 간의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수행하던 '인지적' 업무를 대체하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적' 성격을 지니며, 광범위한 산업 부문의 다양한 기업 활동에 적용[1)]
  - 범용기술적 성격을 지니는 디지털 전환 기술은 기업의 사업기획, 생산, 유통, 보안 등 다양한 활용에 적용되어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제품혁신 혹은 기존 제품의 생산공정을 개선하는 공정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는 생성형 AI 등의 인공지능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나 이는 사물인터넷(IoT), 모바일(5G) 이동통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관련 기술들이 종합된 결과로, 디지털 전환 기술은 현재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유통, 에너지, 농업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적용
-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각 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제조공장 △서비스 플랫폼 구축 △자율주행 배송 등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2)]
  - 제조 공정 전반에 인공지능에 기반한 공장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생산공정을 유연화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맞춤형 고품질 제품을 생산 (예 :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
  - 디지털 전환 기술을 통해 제품을 스마트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배포 (예 : 존디어의 농업 관련 스마트 종합 서비스 플랫폼)
  - 자율주행 기술과 배송 서비스의 결합 등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를 디지털 전환을 매개로 결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산업 분야를 창출 (예 :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관련 생태계)

---

1)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2017년부터 「기업활동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개발 현황을 조사.
2) 관계부처 합동(2023.01) 참고.

○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자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집약되는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 2010년대 후반부터 주요 국가들의 혁신 전략은 제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대응에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활용 확산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자국 내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추진
- 미국은 민간 주도, 중국은 국가·대기업 주도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 등의 유럽권 국가들은 중·장기적 사회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3)]
  - 미국은 2019년 2월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행정명령[4)]' 등을 통해 정부는 민간 투자가 어려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민간은 이에 기반한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방식의 전략을 채택하여 국가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추진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5)]' 등을 통해 인공지능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①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등 선도기업 육성을 포함한 대규모 선행 투자 및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확보 ②전 산업 부문에 대한 인공지능 영향력 확대 ③전후방 산업 연계 등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
  - 독일은 '인공지능 전략 개정안[6)] 등을 발표하여 인공지능 생태계 육성을 통해 달성해야 할 우선순위 분야로 인재·연구·활용·규제·사회 등을 설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인권 및 민주주의 향상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 캐나다의 경우 2017년 고등교육원이 수립한 '범캐나다 AI 전략[7)]'에 따라 3대 인공지능 연구소인 앨버타주의 에이미(Amii), 퀘벡주의 밀라(Mila), 온타리오주의 벡터(Vector Institute)를 중심으로 하는 개방적 산·학·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핵심기술 개발 및 우수인력 양성을 추진

○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적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현재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제조·금융·통신 등 부문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황으로, 산업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솔루션 서비스 시장 역시 해외 기업들(아마존, MS 등)의 높은 점유율에 비해 국내 기업은 미미한 수준
  - 이는 디지털 전환 기술의 ①수요자인 산업 부문의 디지털 기반·역량·인식의 부족과 더불어, ②공급자인 디지털 전환 솔루션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 ③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등에서 기인한 현상
-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2022년 7월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근거한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추진

---

3) 관계부처 합동(2023.01) 참고.
4) American AI Initiative via Executive Order 13859(2019.02). 민간 투자의 가능성이 낮은 △장기투자 △인간-인공지능 협업 △윤리적 인공지능 △안전·보안 △고품질 데이터 △표준·테스트베드 △인력수요 등 7개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국가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
5)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2021.03).
6) Fortschreibung KI-Strategie(2020.12).
7) Pan-Canadian AI Strategy(2017).

-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공무원(정부위원)과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민간위원)로 구성
- 제1차 위원회에서는 '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전략'을 심의·확정하여,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선도사업 지원을 통한 초기 역량 확보,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뿌리산업, 기계제조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에 대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산업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

– 또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 제조업 혁신을 위해 2023년 9월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현장 수요를 고려한 스마트공장 구축에 총 2,180억 원을 지원할 계획

- 동 전략은 △민간·지역 주도 △디지털 제조혁신 질적 고도화 △기업역량별 맞춤 지원 △데이터 기반 협력 강화 △공급기업 선별 육성 등을 통해 '27년까지 2만 개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고, 5,000개의 디지털 제조혁신 고도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
- 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8]은 기업의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약 1,621억 원을 지원하고, 제조혁신 솔루션·역량진단 등 인프라 조성 및 데이터 활용 기반 확충을 위한 제조 관련 데이터 표준화 등을 지원할 예정

〔표 1〕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의 주요 논의·심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차 위원회 (2023.01.13)	• 「산업 인공지능 내재화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 솔루션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 수립 △공급기업 육성 △수요기업 인공지능 솔루션 내재화 등을 동시에 추진 • 디지털 전환 의지가 있는 수요기업에 대한 선도 사업 지원을 통한 초기 역량 확보 및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 • 민간 산업계 주도의 인공지능 활용 수요 발굴 및 관련 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 조직 및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 • 산업 인공지능 관련 인력양성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플랫폼 구축 △산업 데이터 국가표준 마련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추진
2차 위원회 (2023.12.29)	•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 협업을 통해 400여 개 선도 사업을 발굴하고, 2024년부터 민관 공동 1,235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 • **(자동차)** 완성차 업체-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품질·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생산비용을 절감 • **(조선)** 선박 데이터와 항만·물류·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 내 물류 최적화 및 기자재 고장 예측·정비 등 스마스십 서비스산업 생태계를 조성 • **(이차전지)** 숙련자에 의존하던 양극재 소성 공정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어하는 자동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 • **(뿌리산업)** 국내 대기업의 플라스틱 사출 생산 관련 인공지능 제어 기술을 협력사와 공유하고, 숙련 작업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균일한 고품질 전장 부품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 • **(기계제조)** 공장을 구성하는 기계장비·로봇·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국제표준에 기반해 통합·연계함으로써 생산·물류 최적화 및 고품질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01, 2023.12) 참고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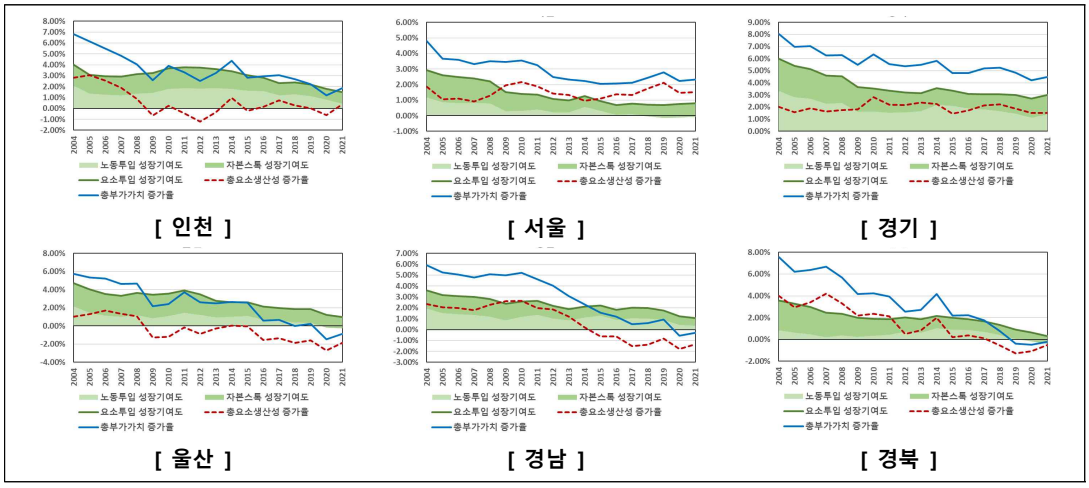
8)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 지원사업의 통합공고 및 접수는 '23.12~'24.04 사이에 예정되어 있어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황.

○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은 지역의 산업 및 기업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그 효과는 지역·산업별로 이질적일 수 있어 지역별 산업 여건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추진이 필요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역 기업·산업별 고용 및 경영성과 효과를 분석한 최근 연구들은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이 기업의 경영성과 및 고용 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 디지털 전환은 인간의 인지적 업무를 대체하는 관련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규 업무를 창출함으로써 생산성 및 고용 모두에 긍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하지만 각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 및 인적자본의 수준, 각 산업 부문의 가치사슬에서 지역 기업이 차지하는 위치 등에 따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역·산업별로 기업의 고용 및 경영 성과에 차이가 발생 가능
  -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의 제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여부 관련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 효과가 지역·산업별로 이질적일 수 있음을 확인
- 이는 즉,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추진에 있어 지역 기업의 고용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 지역·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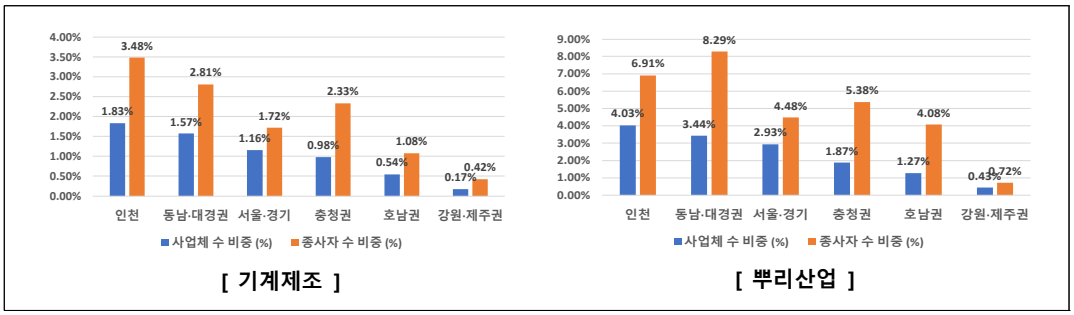
○ 인천시는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에 속해있으나 지역의 산업구조 및 장기 경제성장 추세는 기계제조 및 뿌리산업 분야에 특화된 동남권·대경권 지역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며,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 정도 역시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중에서 낮은 수준

-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등 지표의 인천시 경제성장 장기추세는 서울·경기 지역보다 울산·경남·경북 등 비수도권의 동남권·대경권 지역과 유사
  - 지리적으로 인천과 같은 수도권에 속한 서울·경기 지역은 일정 수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천은 동남권·대경권에 속한 울산·경남·경북 지역과 유사하게 0% 전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록
- 경제성장 장기추세의 인천시 및 동남권·대경권 지역의 유사성은 기계제조·뿌리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상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 인천의 기계제조 및 뿌리산업 부문 사업체·종사자 수 비중은 인천과 유사한 장기 경제성장 추세를 나타내는 동남권·대경권과 비슷하게 나타나며, 서울·경기 및 충청권·호남권·강원권·제주권 대비 높은 수준
- 또한 인천 지역 기업의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5G)·인공지능 등 주요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 비중은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낮으며, 기타 비수도권 지역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
  - 특히 다른 지역 대비 인천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비중이 높은 기계제조 부문의 경우, 지역 기업의 주요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 비중이 서울·경기 지역뿐 아니라 동남권·대경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에 대한 수용성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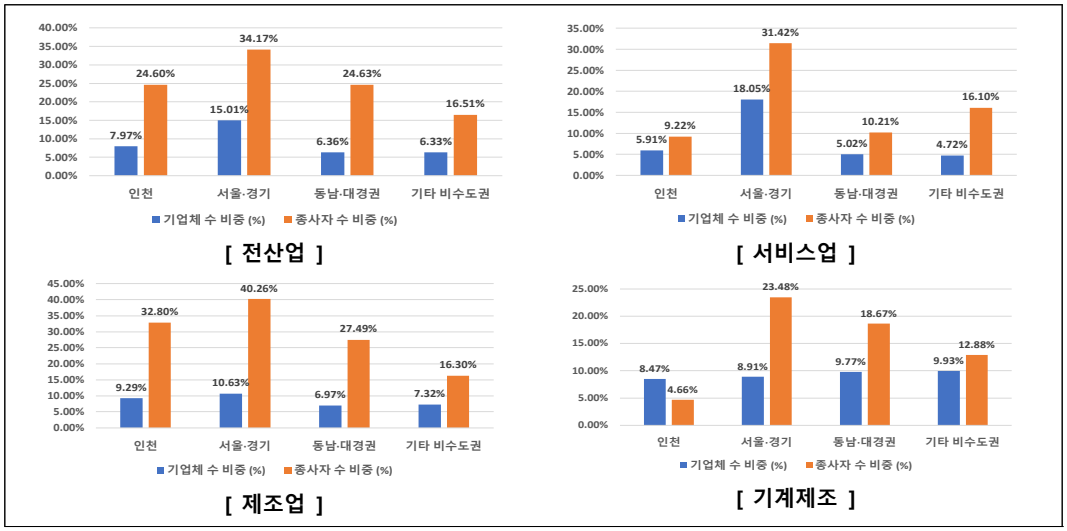
* 자료 : 산업연구원(2023.08) 참고 및 재구성

〔그림 1〕 지역(시도)별 장기 경제성장 추세



* 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전국사업체조사(2021)」참고 및 재작성

〔그림 2〕 지역별 기계제조·뿌리산업 부문 비중



* 자료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전국사업체조사(2021)」참고 및 재작성

〔그림 3〕 지역별 산업별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 기업 비중

○ 인천시 산업·기업의 발전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인천의 산업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은 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 인천지역은 전통적인 기계제조 및 뿌리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의 영세한 규모 및 노후화의 심화가 지역 경제의 생산성 정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는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
  - 인천은 바이오 및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에서도 타지역과 비교하여 산업적 우위를 지니지만, 지역 내 산업 간 불균형 완화 및 지역 잠재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병행이 필요
- 최근 정부가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선도 사업 추진' 정책은 인천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동 사업의 추진계획에 인천의 주요 산업인 뿌리산업 및 기계제조 부문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산업별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는 만큼 수도권에 자리한 인천시가 동 사업의 혜택을 받아 지역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특히 수요자 측면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최대 난제 중 하나가 전문인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솔루션 구축에 있음을 고려할 때, 공급자인 솔루션 기업과 수요자인 관련 산업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 인공지능 얼라이언스'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인천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의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2024년 1월~2월 누적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동기대비 0.7% 증가, 내수판매 대수는 11.9%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같은 기간 수출단가 증가세로 인해 자동차 및 부품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5%, 4.1% 증가[9)]

- 2월 국내 자동차 신규 생산은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13.6%, 16.2% 감소한 30.0만 대를 기록하였는데,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30만 대 이상을 생산하며 2022년 9월부터 30만 대 이상의 생산 실적을 유지
  - 내수 판매량은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각 21.2%, 0.6% 감소한 11.6만 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개시 및 일부 가동 중단 공장의 생산 재개 등에 따라 차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
- 2024년 2월 자동차 수출은 △연휴에 따른 선적인 감소 △지난해 큰 폭의 수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미래차 전환 생산시설 정비 등으로 인해, 수출단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한 51.6억 달러를 기록

〔표 1〕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 내수판매, 수출 추이

(단위 : 대, 억$, %)

구분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4.01	'24.02
생산 (증감률)	352,972 (8.7)	311,959 (9.7)	301,799 (-1.9)	341,019 (4.1)	370,145 (-2.5)	367,622 (4.0)	358,423 (16.8)	300,459 (-12.5)
내수 (증감률)	136,089 (-5.0)	130,667 (-0.7)	133,709 (-4.7)	141,350 (-2.1)	160,476 (2.9)	143,249 (-11.1)	116,152 (-0.4)	115,753 (-21.3)
수출 (증감률)	228,976 (2.4)	199,214 (18.5)	197,770 (2.5)	225,420 (8.1)	245,675 (11.9)	247,295 (7.9)	245,255 (22.1)	198,653 (-10.9)
수출액 (증감률)	59.0 (14.9)	52.9 (28.4)	52.3 (9.2)	58.8 (19.7)	65.3 (21.0)	63.9 (17.7)	62.1 (24.6)	51.6 (-7.9)
부품수출액 (증감률)	20.2 (-0.3)	19.1 (5.2)	19.4 (-3.4)	17.5 (-3.7)	19.3 (3.8)	17.7 (-10.8)	19.1 (10.8)	19.8 (-1.7)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4.03.19)' 참고 및 재구성
* 주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표기

9)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4.03.19)'.

○ **(전국)** 2024년 2월 기준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2023년 11월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액은 전기차 수출 지난해의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6.2% 감소

- **(생산지수)** 전국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9%, 전월대비 13.8% 감소한 109.7로, 지난 2023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10 이하로 낮아지며 생산 경기가 다소 위축
  - 국내 주요 자동차 생산 기업의 시설 공사 및 2월의 설 명절 연휴 등이 자동차 생산 및 출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
- **(품목별 수출액)** 국내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6.2%, 전월대비 12.1% 감소한 71.4억 원으로, 승용차, 화물자동차, 전기차 등을 포함하는 완성차가 약 72.2%, 자동차부품이 약 72.8%의 비중을 차지
  -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2024년 들어 대체로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이나, 화물차 및 자동차 부품은 소폭 증가
  - 자동차산업의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화물차(5.7%) △자동차부품(-1.6%) △승용차(-3.9%) △기타 자동차(-9.8%) △전기차(-19.2%) △특장차[10](-55.8%) 순

○ **(인천)** 2024년 2월 인천지역의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117.4로 감소세가 전국에 비해 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액 역시 2.9% 감소하여 전국에 비해 낮은 감소세

- **(생산지수)** 인천의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9% 감소, 전월대비 7.3% 감소한 117.4로, 전국에 비해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다소 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 **(품목별 수출액)** 인천의 자동차 관련 수출액 비중은 완성차 비중이 약 86.0%, 자동차부품이 약 14.0%로 자동차 부품수출액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세부 부문별 수출액은 대체로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며 전국 추세와 차이
  - 인천시 자동차 관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9%, 전월대비 5.4% 감소한 6.3억 원 수준으로, 2023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세
  -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화물자동차(10.1%) △전기차(4.1%) △승용차(3.2%) △자동차부품(-27.1%) △기타 자동차(-33.9%) △특장차(-33.5) 순

〔표 2〕 국내 자동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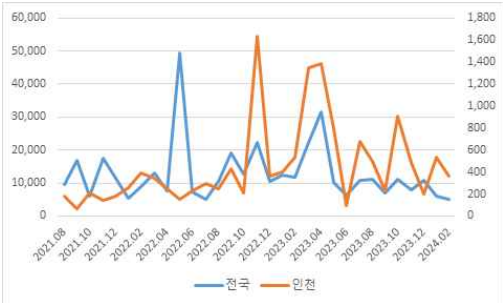
지역	항목	`23.11	`23.12	`24.01 (p)	`24.02 (p)	`23.02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자동차 제조업	133.8	130.5	127.3	109.7	124.5	-13.8	-11.9
인천	자동차 제조업	132.5	128.6	126.7	117.4	127.5	-7.3	-7.9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의 자료를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10) 특장차에는 소방차, 탱크로리, 차량운반차, 냉동탑차 등을 포함.

[승용차(MTI7411)]

[화물자동차(MTI7412)]



[특장차(MTI7413)]

[전기차(MTI7414)]

[기타 자동차(MTI7419)]

[자동차 부품(MTI74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2 : 2021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승용차로 구분되었으나, 2022년부터 해당 기종이 기타 자동차로 분류되며 전국 및 인천 지표의 변동 확대

〔그림 1〕 자동차 품목별 수출 동향(2024.02)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4.02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17.7	45.8	105.8	35.5	149.6	-9.4	114.1	4.8	118.2	14.1	134.4	-20.3
자동차	109.7	-11.9	109.0	-11.2	119.6	5.6	117.4	-7.9	101.5	-16.6	197.4	0.6
기계장비	93.7	-8.6	94.4	-6.6	131.5	-17.6	226.7	94.6	210.2	70.1	186.2	-8.6
바이오-의약	135.8	18.5	114.5	-4.2	-	-	210.7	93.8	71.0	-42.5	-	-
바이오-화장품	82.2	-6.1	86.4	-4.5	103.6	-1.2	106.6	5.6	95.9	1.9	101.2	7.1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19,883	14.8	64,821	-30.7	941	-33.6	10,114	177.2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교통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5월 출시되는 K-패스 회원으로의 전환 필요 +

#국토교통부

○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K-패스 회원으로의 전환 절차를 시행 중

-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기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버전
- K-패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나,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사람은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만으로 K-패스 혜택을 이용 가능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모바일 앱(app) 또는 누리집((www.alcard.kr)에서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카드번호 및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K-패스로의 회원 전환이 완료
- 오는 4월 30일까지 회원 전환을 완료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K-패스 출시일인 5월 1일부터 즉시 새로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미리 전환을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 이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주의 필요

경제 개인 회생 및 파산채무자 최소생계 보장을 위해 물가 변동 반영 +

#법무부

○ 법무부가 개인 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기존 법령은 회생·파산 과정에 있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6개월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비에 경제 상황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 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생계비 상한금액이 파산선고 당시 시점의 4인 가구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정률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

산업 행안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 부담 완화 +

#행정안전부

○ 행안부가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적정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계약 예규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기준을 개선

- 금번 개선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4월)과 낙찰자 결정기준(7월)의 시행에 따라, 중소업체의 지방계약 입찰 어려움이 완화되고 높은 기술력의 기업이 적정한 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예정

분야	항 목	주요 내용
중소기업 부담 완화	실적인정 기간 확대	• 과거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실적인정 기간 7년으로 확대
	신기술·특허공법 협약서 제출 기한 연장	• 계약 체결 시까지 제출하던 협약서 제출 기한을 계약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시기 이전까지로 연장
	가산점 항목 정비	• 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등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 삭제
	계약 해제·해지 요건 완화	•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 금액 감소 요건 및 계약정기기간 요건을 각 10% 하향 조정 함으로써 업체의 계약 해제·해지 요건 완화
적정 대가 보장	차등점수제 도입	• 낙찰자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의 기술 점수를 차등부여 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 마련
	동점자 처리기준 변경	• 입찰 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하는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

산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관세·무역 상담 무료 제공 시행 +

#관세청

○ 관세청은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출 지원을 위해 전국 세관 20곳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

- 공익관세사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300여 개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
- 2024년에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 직원과 함께 현장 방문 및 전화 상담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수출 관련 업무 지원을 수행할 계획
  -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원하는 기업은 전국 20개 세관의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문의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 가능
- 관세청은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

산업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참여사 모집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할 예정

- 동 사업은 중기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제해결형 △자율제안형 △수요기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 금번 공고에서는 문제해결형 및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이내) 및 기술개발자금(최대 1.2억 원 이내) 등을 후속 지원할 계획
  - 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K-Startup 포털 및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내 사업공고를 참고

구분	문제해결형 프로그램	자율제안형 프로그램
사업 내용	•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협업과제 제출, 스타트업이 수요기업의 문제를 해결 •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30개 분야 활용 총 16개 협업과제 선정	• 민간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스타트업과 대·중견·공기업의 협업을 지원 - (민간) 프로그램별 스타트업 모집·선정 후 추천 - (정부) 프로그램별 추천된 스타트업에 후속 연계 지원
선정 규모	• 48개 사 내외	• 프로그램별 상이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및 기술개발 연계 지원 • 수요기업 협업 기회 제공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연계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3월 29일(금) ~ 4월 30일(화) •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4월 12일(금) 이후 • 각 프로그램 주최 수요기업 누리집 확인 필요

교육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사업 참여 대학 모집 +

#교육부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 투자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에 참여할 대학 총 13곳을 모집

- 동 사업은 대학의 첨단산업 관련 학사급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곳·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0곳(또는 연합)을 선정해 모두 655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곳을 선정해 90억 원을 지원할 예정
-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13일까지 △특성화 분야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주전동 및 융합전공 등 인재양성 체계 △교원·장비·기반시설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역량 확충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신청할 필요
  - 금번 사업은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현장조사-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의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참고

복지 주소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종류 확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에 12개 급여를 추가하여,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를 향상할 계획

- 기존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여,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 및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다른 수급권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지원·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존재
- 이에 복지부는 2023년 12월 수급권자가 주민등록 거주지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실거주지 신청 가능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급권자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를 향상할 계획
  - 개정 법령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이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등 13개 급여를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운영
  - 또한 4월부터는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한 급여 항목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등 12개 급여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

교육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을 위해 `29년까지 220억 원 투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데이터 융향 리더 양성」 사업 공모를 통해 데이터 융합 분야 석사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원)을 선정하고, 2029년까지 6년간 학교당 최대 82.5억 원을 지원할 계획

- 금번 사업은 해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및 마케팅 전략 등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해외진출을 선도할 수 있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수준의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
- 사업의 지원 대상은 데이터 융합분야 석사과정 신설이 가능한 국내 대학(원)으로, 2024년에는 해외교육형(2) 및 해외연계형(1)의 총 3개 과제를 신규 선정하여 각 과제별 최대 6(3+3)년 간 82.5억 원을 지원할 예정
  - 동 사업에 따른 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의사결정 및 해외진출 선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캡스톤 및 국제공동연구 등을 포함한 구성이 필요
  - 해외교육형을 기업형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포함해 졸업학점의 40% 이상을 해외 현지 교육으로 수행해야 하며, 해외연계형은 국내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이 요구
- 사업 관련 세부내용은 과기정통부·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참고 자료

- 산업연구원, 「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의 지역·산업별 기업 효과」, 2024.03.07.
- 산업연구원, 「지역혁신 투자와 건설·설비 투자의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비교·분석」, 2023.08.23.
- Acemoglu D. & P. Restrepo, "Automation and New Tasks: How Technology Displaces and Reinstates Labo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2), pp.3-30, 2019.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혁신의 성공방정식,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새로 쓴다!", 2023.01.13.
- 관계부처 합동, 「산업 AI 내재화 전략 -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 2023.01.13.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요 국가 AI 전략 분석 -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캐나다를 중심으로 -」, 2022.08.09.
- Pan-Canadian AI Strategy - CIFAR.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지털전환 선도사업에 민관 1,235억 원 투자", 2023.12.29.
-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지역과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 육성한다", 2023.09.18.
- 관계부처 합동,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2023.09.18.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2,180억 원 규모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2023.12.15.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전국사업체조사', 2023.03.20.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기업활동조사', 2023.03.20.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알뜰교통카드보다 혜택 많은 K-패스로 갈아타세요", 국토교통부, 2024.03.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법무부, 2024.03.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소업체 지방계약 입찰 부담 완화…"실적인정 7년으로"", 행정안전부, 2024.03.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출 절차 어려우신가요, 무료로 공익관세사 도움 받으세요", 관세청, 2024.03.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기업과 협업 과제 수행할 스타트업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03.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도체·이차전지 인재 양성할 13개 대학 선정…총 745억 원 지원", 교육부, 2024.03.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소지 상관없이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2024.04.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 대학과 손잡고 글로벌 데이터 인재 키운다…매년 30명씩 배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05.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7호(2024.04.12)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4년 04월 12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